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총괄의견>

□ 일반행정분과 의견

- 2024년도에는 고금리 지속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민생활 적재적소에 예산 적정 배분 및 편성 기대
-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일반행정분야는 예산 배정이 작은 실정이지만 가능한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행정분야의 예산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 복지여성분과 의견

-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 초등입학 자녀부모 단축근무,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운영 등이 많이 활성화 되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북도가 되었으면 좋겠음
-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예산의 한계가 있으나, 사업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 하여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분과 의견

- 충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생성 지원, 체육활동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충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
- 특히, 청주시를 비롯한 도시에 집중된 문화예술 활동이 충청북도의 지자체에 고루 분포되고, 충북도민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 받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례반복적인 지원이 아니라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지길 바랍

□ 경제환경분과 의견

-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청년, 투자유치 환경조성, 경제 인프라구축 관련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추진하였으면 함

□ 농정분과 의견

- 지방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 지속으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인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 지원 지속적으로 강구
- 고된 농작업에 따른 농사 기피 현상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의 활력을 위하여 청년 농업농 육성, 농촌의 관광 자원화,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육성 등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됨

□ 안전건설분과 의견

- 기존 시설물의 지속적인 예산 집행도 중요하나 사전 예방 및 사고 발생시 대처 할 수 있는 재난대응역량 강화의 예산 증액 필요. 재난안전분야의 많은 예산이 증액 필요
- 재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매년 새로운 사업발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나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나 효과성, 긴급성의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됨

□ 도민제안사업 심의결과

사 업 명	소관부서	검토의견	
		추진	미추진
불법투기지역 CCTV 형광스티커 부착	정보통신과	○	
반려견 순찰대	자치경찰정책과	○	
청소년 지역명소탐방 및 문화활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학교밖 청소년 선배 멘토링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농업용 썩는 비닐 지원사업건의	스마트농산과	○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농식품유통과	○	
지방도 325호선 재포장공사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도 302호선 가로등설치	도로관리사업소	○	

이에 별첨과 같이 각 분과별 의견을 취합, 2024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 11.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최원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일반행정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2024년도에는 고금리 지속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민 생활 적재적소에 예산이 적정 배분 및 편성되어 도민들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윤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일반행정분야는 예산 배정이 작은 실정이지만 가능한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의 예산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사, 축제 등 소모성 예산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정 발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 편성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산 편성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결과 과정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여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분야별 세부의견

1) 일반행정분야

○ 타 시도에 비해 다소 추진실적이 미흡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도민들의 참여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전 직원 어울림 연수, 도·시군청원경찰체육대회 등 행사성 사업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됨.

2) 인구정책분야

- 인구증가 유입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양육수당 지원의 획기적 확대 및 각종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및 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특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3) 자치경찰분야

-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필요
 - 2023년 7월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44.2%(출범 2년째)로 2022년도의 44.0%(출범 1년째)와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되어
 -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함
-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을 위한 cctv 카메라 설치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장비 설치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반려견 순찰대 운영>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안전 관련 사업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예산 대비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사 업 명	소관부서	검토의견	
		추진	미추진
불법투기지역 CCTV 형광스티커 부착	정보통신과	○	-
반려견 순찰대	자치경찰정책과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 복지여성분과 >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 초등입학 자녀부모 단축근무,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운영 등이 많이 활성화 되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충족도가 되었으면 좋겠음
- 예산 편성 후에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꼼꼼이 확인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부시기, 중간 모니터링, 결과보고 등 전반적인 성과보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향후 예산 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 필요있음
- '2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24년에도 그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24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부분적으로 일정 비율 감소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특히 일회성 행사의 사업비가 주 감액 대상인데 예산 절감은 공감하지만 본연의 행사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예산 조정되고 편성되길 기대함
- 저출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저출산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사업은 부족한 감이 있으며,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단축근무지원도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분과에 신규사업이 다수 발굴된 부분에 대해 만족하며, 일회성 사업 지원보다 공공을 위한 사업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예산의 한계가 있으나, 사업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있음

2. 분야별 세부 의견

1) 여성정책 분야

가.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육아는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육아의 문제는 여성의 몫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남성육아 휴직제도라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 기업 중심으로 적극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생각함.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단축근무 지원도 함께 확대가 필요한 사업임

나.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단축근무 지원

-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입학 후 1학년 자녀의 하교 이후 돌봄에 대한 고민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업 확대 필요

다.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으로 갈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용되길 바람

라. 청소년 지역명소탐방 및 문화활동

- 매년 단순 행사성 운영이 아닌 지속적인 필요성과 활동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

2) 복지·노인·장애인 정책 분야

가.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

-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문화로 인하여 자녀를 부모 자신의 일부 혹은 소유물로 여겨 훈육이라는 명분아래 체벌이 자녀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친권을 양육과 보호의무 관점보다는 절대적 지배권능을 부여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해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아동권리 중심의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필요

나.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운영

- 최근 저출생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이런 저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함. 취업 여성이 증가하고 일과 근로를 병행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늘 자녀 양육이 문제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증설하여 워킹맘들이 편안한 양육과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다.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시범사업

- 지역아동센터는 비등록 아동이 긴급한 일시돌봄 수요 발생 시 이용불가 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긴급·일시 돌봄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실천해보고 추후 평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확대가 필요함

라. 학대피해아동 치유캠프,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지원

- 학대피해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치유캠프 및 장애인학대예방 교육·홍보도 함께 진행되도록 지원방안 마련 필요

마.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바. 기타의견

- 노인 일자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 장기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져야 함
- 충남도 및 수도권역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돌봄사업(긴급돌봄·야간돌봄 등) 추진 중, 장애인아동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야간돌봄 지원방안 마련 필요

3) 보건정책 분야

가.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사업

- 집중호우 피해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등 트라우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지원대상 및 지역 확대 필요

나.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비 지원, 미충족 진료과목 순회진료

- 취약한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기대감이 큰 사업으로 향후 공공의료 분야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

다. 기타의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 실시 필요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사 업 명	소관부서	검토의견	
		추진	미추진
청소년 지역명소탐방 및 문화활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
학교밖 청소년 선배 멘토링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문화체육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충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생성 지원, 체육활동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충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램
특히, 청주시를 비롯한 도시에 집중된 문화예술 활동이 충청북도에 지자체에 고루 분포되고, 충북도민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 받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례반복적인지원이 아니라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지길 바램

2. 분야별 세부의견

1) 문화예술분야

-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새롭고 도민이 즐거울 수 있는 사업발굴 노력에 지체 없길 바램. 특히, 국악과 직지유등문화제 관련 예산 등 충청북도만의 특색을 담은 역사와 전통 계승과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사업이 더욱이 필요함

가.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충청북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창작활동 지원, 신규 예술인 지원을 통해 충청북도에 다양한 예술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충청북도의 많은 문화활동이 여전히 도내 주요 지역에 머물러 있음. 도내 문화 소외 지역이 없도록 부족한 문화활동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발굴 바램.

2) 체육진흥분야

- 연례반복되는 체육대회 지원행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지원보다 새로운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육행사로 새로운 사업비 집행이 필요
-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부담없이 생활체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예산수립이 필요

3) 관광분야

- 충청북도에는 많은 관광 요소가 있으나 아직 적극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됨. 관광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함.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쓰여지길 희망
- 관광사업비가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4) 건축문화분야

- 빈집으로 인해 농촌마을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공간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해 더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노력 바람

5) 청남대사업소 사업분야

- 도내 대표 관광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해당없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경제환경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R&D, 청년, 투자유치 환경조성, 경제 인프라구축 관련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추진하였으면 함

2. 분야별 세부의견

1) 경제통상 분야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충청북도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편,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도민들과 실직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가.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컨설팅은 기업경영과 근로자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지원할 것을 건의함

나. 중장년 전문가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지역 내 중장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일자리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퇴직자의 구직,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차질없이 실행해 줄 것을 건의함

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주역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예산을 더 투자하여야 함

2) 과학인재 분야

○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재발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가. 도정 주요 현안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의 역할과 활용방안이 다각화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나. 충북여성과학인재육성사업

특정 성별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타당한지 의문, 성별의 구분은 사업성에 맞지 않다고 여겨져 “충북과학인재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지원사업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체계적인 인재발굴과 장기적 육성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관련 사업분야에서 지역 인재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험 및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였으면 함

3) 투자유치 분야

○ 투자유치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분야로, 추가적인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가. 수도권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수도권 등 지역에 충북의 투자환경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필요

4) 바이오식품의약 분야

○ 바이오업계 경영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제도 발굴이 필요

가.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활용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신규)

우리도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 분야의 연구 개발지원과 의료기기 유망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많은 지원 필요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사업

역점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5) 환경산림 분야

○ 환경산림과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었으면 함

가.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역의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반영 필요

나. 탄소중립 바로알기 범도민 홍보

관내기업과 주민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을 중점 추진해주시기 바람

6) 산림환경연구 분야

- 수목원 및 휴양림 특성화 및 보완사업으로 충북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미동산수목원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목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람
- 또한 수목원은 지역의 생태계와 환경보전에 기여하므로 새로운 예산을 투자하여 제2수목원 조성을 가속화할 것을 건의함
- 토종 산림자원 보존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함

7) 보건환경연구 분야

-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환자수용시설, 치료 시스템 확보 당부
- 대기환경측정 운영 예산 지원으로 시군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기질은 충북 실현을 위해 대기오염도 측정제도 운영 필요

8) 경제자유구역 분야

-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바이오산업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과 구인난 해소 효과 기대
-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내 국내·외 유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인센티브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면 함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해당없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 농정분과 >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지방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 지속으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인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고된 농작업에 따른 농사 기피 현상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의 활력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의 관광 자원화,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육성 등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상이변문제는 인간이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짐에 따라 봄철 과수 저온피해, 꿀벌이 사라지는 문제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정예산은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음

2. 분야별 세부의견

1) 농업정책분야

- 농업정책분야는 미래 농업종사자 육성 등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골고루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가.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 교육·육성된 도시농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함
 - 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 기본적인 소득 지원책으로 지속적 지원 필요
 - 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 부족한 농촌 노동력 문제와 결부하여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과 화합과 친목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라.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 청년들의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여 쉽게 농지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못하며 농촌 노령화로 인한 매년 유휴 농경지 증대,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여 필요

2) 스마트농산분야

- 스마트농산분야는 농촌의 미래를 위하여 보다 편리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함

가. 생분해성 멀칭비닐필름 지원

- 농촌지역에서 비닐멀칭 영농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매년 많은 폐비닐이 생산·일부 수거되고 있으나 농촌인력의 고령화, 폐비닐 수거에 따른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지나 하천 들판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됨.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가능하므로 확대 시행이 필요함

나. 농업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

- 가을과 이른봄 농가에서 과수 전지목과 농산부산물 처리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를 임차하려해도 수요가 많아 대기하는 사례가 많음. 이를 해소하고 농지 주변 환경 정비·부산물 소각행위를 방지하여 산불예방에도 기여할 것

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 지원

- 다양한 조사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3) 농식품유통분야

- 농식품유통분야 관련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식품산업화, 홍보 마케팅 모두 적절하게 편성하였음

가. 농산물 유통본부 설립

- 충북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센터 운영과 택배 지원을 원활히 하는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나. 못난이 농산물 판촉

- 우박, 태풍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 따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민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

다.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 과일 수출은 과일 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과일농가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꾸준한 수출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출하시기에 맞추어 적절한 선별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지원해야 함

4) 축수산분야

- 축수산분야는 특히 전염병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다 선제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이 필요함

가.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 방역시설관리, 양돈전염병 예방사업, 오리시예방사업

-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 예방이 되도록 지원 요망

나. 한우경쟁력 강화(개량) 사업

- 한우값 파동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우농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집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 꿀벌의 감소는 농산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양봉농가에 별 사양 관리 지원은 매우 중요함. 현재 지구온난화와 응애류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여야 하며,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을 규명하여 빠른 시일 내 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과수와 화훼 등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지원병 역할을 해줄 것임

5) 동물방역분야

- 동물방역분야에서는 금년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병하여 일부 지역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음. 향후 백신과 축사 소독 등의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가.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 사전 방제 위주의 정책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함

나. 양봉농가 휴대용 약품분사기 지원

- 꿀벌 실종시대에 맞는 신규 사업으로 양봉장 주변 및 양봉 기자재 소독을 통해 양봉 전염병 발생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향후 확대 지원 필요성 있음

6) 농업기술분야

- 농업기술분야에서는 미래의 농업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적절함

가.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운영 및 연구

- 농촌소멸, 기후변화 등 농업 현안문제 극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 어르신 복지실천 사업

-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현재 농촌을 떠받치고 있는 농촌 노인들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농촌노인 활력 증진 효과가 기대됨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사 업 명	소관부서	검토의견	
		추진	미추진
농업용 썩는 비닐 지원사업건의	스마트농산과	○	-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농식품유통과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안전건설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예산은 우선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 특히 안전건설분과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우선순위 및 지역별 요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 객관적인 주민참여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속에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이 관리와 감독 주민의 감시 범위내에서 효율성 있는 집행에 이루어 지도록 관리가 필요
- 기존 시설물의 지속적인 예산 집행도 중요하나 사전 예방 및 사고 발생시 대처 할 수 있는 재난대응역량 강화의 예산 증액 필요. 재난안전분야의 많은 예산이 증액 필요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재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매년 새로운 사업발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나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나 효과성, 긴급성의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됨
- 예산안 심의시 효과적인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사업우선순위와 필요성을 제시하여 위원님들이 우선순위 결정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전반적으로 안전 총북 실현을 위한 시의적절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시급하게 사업들을 우선 처리해야겠지만, 사전예방 기반의 재난안전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야 할 기반사업들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2. 분야별 세부의견

1) 재난안전실

- 특히 집중안전점검 추진이 필요 - 노후 방치 시설 위험, 자연환경 하천 등 사전 정밀 점검과 진단
- 재난 안전 체험과 교육 홍보에도 투자가 필요
- 위험성평가 등 위험 리스크 관리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최근 일어난 우리 도의 여러 재난 사고에 따른 해결책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이 시급

-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

-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율, 체험마당시 스템의 질들을 꼼꼼히 체크가 필요함
- 재난은 사전 예방교육이 우선 필요하므로, 단기적 체험으로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안전예방교육으로 진행이 필요함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재난안전연구센터 역량강화를 통해 시군의 사전위험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재난안전 정책 지원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해야함.

2) 균형건설국

- 지난번 홍수피해로 아직 도로와 교통표지판 등의 보수가 미진
- 도로 선형 개선과 확장 및 방지턱 등의 시설 보완이 우선 시급
- 거주 인구의 많은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하여 교통과 문화, 관광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예산반영이 절실 하다고 생각함
- 생활여건 인프라 구성도 중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의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이 더 효율적
- 지방도유지보수는 꼭 필요함 긴 장마로 인해 도로면이 많이 파손되어 있어 위험 요소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

-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다른 예산보다는 긴급성이 조금 낮은 것 같아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처리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3) 소방본부

-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방관의 업무 환경개선과 보호구 지급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보은소방서는 노후화가 되어있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려서 청사 증축지원
- 소방차량 재난현장 영상시스템 구축, 인공지능기반 119신고접수 시스템, 화재조사 첨단장비 보강 등과 같이 과학기술을 재난현장에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갈수록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사 업 명	소관부서	검토의견	
		추진	미추진
지방도 325호선 재포장공사	도로관리사업소	○	-
지방도 302호선 가로등설치	도로관리사업소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도민제안사업)

1. 도민제안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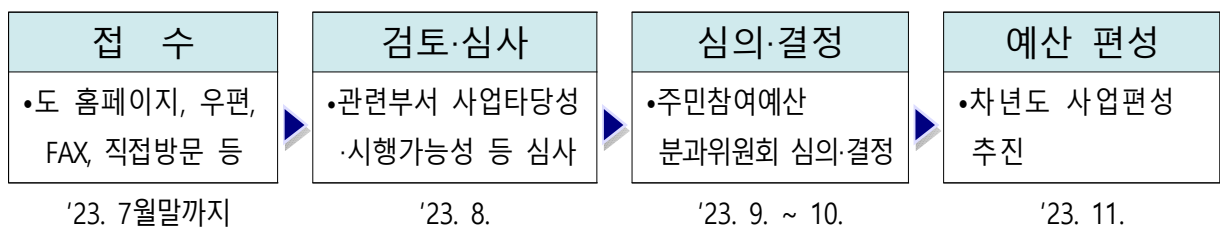
- 공모규모 : 100억원 ※ (분과별 실링) 10억원, (시군제안) 40억원
- 접수기간 : 상시 ※ '24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7월까지
- 참여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FAX 등
 - * 홈페이지 : 정보공개>도살림살이>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방

○ 제안대상

-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비 자체투자 사업(생활SOC)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개선사항 등

* 제안제외 : ① 국가사무 ② 기 시행사업의 증액 ③ 특정단체 지원 ④ 공공성 결여

○ 추진절차



2. 도민제안사업 제안현황

제안건수	사업부서 검토결과			비 고
	추진가능	장기검토	추진불가	
54	8	18	28	

3. 도민제안사업 심의결과

- 사업부서 검토결과 '추진가능사업' 8건 : 추진